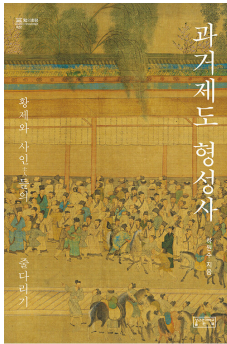


과거제도 형성사: 황제와 사인(士人)들의 줄다리기

김용찬*



저자: 하원수

출판사: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출판연도: 2021

분량: 735쪽

I. 과거제도의 기원에 대한 재인식

과거(科擧)가 중국, 나아가 동아시아 역사 전체에서 가진 중요성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서구 제국주의 열강에 의한 침략으로 강제 개항과 근대화라는 파고를 맞기 전까지 동아시아에서 과거는 군주를 도와 국가를 경영하였던 관인(官人)을 선발하는 가장 기본적이며 보편적인 제도였다.

* 金龍滌. 전북대 역사교육과 조교수.

e-mail: kim.yongchan@bnu.ac.kr.

과거는 ‘시험으로 관인을 뽑는’ 제도였으며,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양인(良人), 즉 일반 민(民)이라면 누구에게나 그 기회가 열려 있었다. 과거는 군주를 제외한 특권층의 세습을 부정하였던 중국의 역대 왕조에서 관인이라는 특권층으로 공인받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과거는 중국에서 시작되어 한국, 베트남에 도입되었고, 일본에서도 도입이 시도되었으나 결국 무산되었다. 중국의 제도를 어떻게 활용하였는가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동아시아의 전통 사회에서 과거는 관인이 될 수 있는 독존적인 수단이었다.

과거는 가문이나 신분이 아닌 개인의 능력만으로 관인이라는 특권층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근대 이전까지 전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독특한 제도였고, 시험을 통한 관리 선발 제도의 선구적인 사례로 근대 이후에도 모방과 연구의 대상이었다. 과거는 그 제도의 성립 이전과 비교해보더라도 대단히 독특한 제도였다. 한대(漢代)에는 황제의 명령에 따라 중앙과 지방의 장관이 관인이 될 인재를 추천하는 찰거(察舉) 제도가 있었다. 남북조(南北朝) 시대에는 지방마다 중정관(中正官)을 파견하여 인재를 선별하고 등급을 매겨 관인 선발에 활용하는 구품(九品) 중정(中正) 제도가 있었다. 즉 한대 이래로 남북조 시대까지 관인은 그 지방자 스스로 희망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의해 공인된 관인에 의한 추천으로만 선발될 수 있었다. 이에 비해 과거는 자기 스스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고, 그 성적으로 선발될 수 있었다.

동아시아 전체에 영향을 끼친 중국의 과거는 매우 획기적이고 독특한 제도였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혁신, 즉 관인에 의한 추천이라는 타천(他薦)에서 지방자 스스로 추천이라는 자천(自薦)으로의 변화는 어떻게 가능하였고, 성공할 수 있었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과거의 기원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이견이 있지만, 그것이 언제 구체적으로 제도화되었는지는 지금까지 큰 이견이 제기되지 않았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수(隋)의 건립 이후에서 당(唐) 초기에 이미 완전한 형태의 과거, 특히 그 중심으로 굳건한 지위를 차지하였던 과목인 진사과(進士科)가 성립하였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이다.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개설서를¹⁾ 막론하고 고등학교 세계사,²⁾ 동아시아사³⁾ 교과서 등도 거의 모두 일률적으로 과거가 수(隋)에서 시작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과거의 시작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는 일본의 중국사 연구자, 특히 미야자키 이치사다(宮崎市定)가 구성한 중국 관리 선발 제도의 발전 과정과 그 역사적인 의의에 관한 연구에서 비롯되었다. 이른바 중국 중세의 귀족제(貴族制) 사회를 성립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그가 구체화시킨 구품(九品) 관인법(官人法)이 수(隋) 문제(文帝)에 의해 폐지되었고, 이를 대체한 것이 바로 진사과를 중심으로 한 과거였다는 것이다.⁴⁾ 이 학설은 단순히 관리 선발 제도에 대한 설명에서 그치지 않고, 당·송 변혁기라는 시대 구분과 사회경제사적 맥락에서 성립한 것이기 때문에, 역사의 큰 변화를 이해하는 핵심으로서 큰 의심 없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원수 교수의 『과거제도 형성사』는 미야자키 이치사다(宮崎市定) 이래로 정설화된, 구품 중정 제도의 폐지를 곧 과거의 시작으로 보는 일반적인 인식에 대해 전면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과거제도 형성사』는 구품 중정 제도가 수 문제에 의해 폐지된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 그것과

1) 국내 저자들에 의해 편찬된 대표적인 동아시아사 관련 개설서만 보더라도 과거 제도를 수(隋) 문제(文帝)의 개혁에서 비롯되었다고 서술하였다. 신성곤, 윤혜영. 2004, 155; 신채식. 2018, 305 참고.

2) 김형중 등. 2018, 42; 최준채 등. 2018, 39; 이병인 등. 2018, 42; 김택수 등. 2018, 43 참고.

3) 최현삼 등. 2018, 53; 김태웅 등. 2018, 67; 이병인 등. 2018, 69; 안병우 등. 2019, 67 참고.

4) 宮崎市定. 1977 참고.

동시에 과거, 특히 진사과가 성립하였다는 기존의 이해에는 사료적으로 모호한 측면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일반적으로 알려진 과거의 특징, 즉 시문(詩文)의 저작 능력을 평가하는 진사과(進士科)가 중심이 되고, 그 주관 기관이 관리의 인사를 책임진 이부(吏部)에서 의례와 교육, 외교를 책임진 예부(禮部)로 바뀌면서 관리의 선발과 인사가 분리되는 기본적인 요소는 단기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당 초기부터 중기까지 오랫동안 서서히 일어난 변화 과정의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과거제도 형성사』는 기존의 이해가 이미 과거가 확고하게 제도화된 당 후기 또는 송대(宋代)의 사료에 기반하여 그 초기의 모호함을 놓쳤기 때문에, 그 당시의 상황에서 다시 과거의 성립 문제에 접근해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먼저 『과거제도 형성사』가 어떻게 이와 같은 결론을 얻게 되었는지, 그 내용을 정리해보겠다.

II. 과거제도의 형성 과정 재구성

1. 과거제도의 원형

『과거제도 형성사』의 전제는 과거의 성립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 즉 그것이 수·당 제국의 성립과 더불어 생겨났다는 것을 과연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있는지이다. 과거라는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료가 없어, 학계에서는 지금까지 그 출현 시기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고 하며, 과거의 다양하고 새로운 속성들이 결코 몇 개의 조처로 단기간에 완성될 수 없다는 가정을 세웠다. 과거의 성립 과정을 근본적으로 다시 살펴보기 위해서는 후대의 문헌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수대 이래의 인물들이 남긴 같은 시기의 기록을 통해 당시 관인 선발

제도의 실상을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수·당에 의한 통일 제국의 재건으로 관인에 대한 수요는 크게 늘었으나, 그 성립 초기에는 언제 망할지 모르는 국가의 관직은 별다른 인기가 없었기 때문에, 수의 문제, 양제나 당의 고조, 태종은 모두 능력 있는 인재를 끌어들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찰거, 즉 추천에 의한 인재 선발을 포기할 이유가 없었으며, 오히려 ‘빈공’, 즉 이렇게 선발된 인재를 황제의 손님으로 여길 만큼 그 대상자를 정중하게 예우하였다. 또 황제는 여러 가지 명목으로 인재를 찾는 조칙을 빈번히 내렸는데, 이는 후대의 제거(制舉)와 비슷한 형태였다. 장기적으로는 관인을 배출할 수 있는 중앙 관학을 진흥시키기 위해 노력하여, 그것의 확대, 개방을 통해 인재 양성과 선발에도 힘을 쏟았다. 하지만 후대의 상거(常舉), 즉 명경과(明經科), 진사과(進士科)와 같은 정례화된 시험을 통한 관인 선발 방식을 명확히 입증할 만한 사료는 아직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시기에 진사과로 대표되는 과거의 출현을 선불리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정리하였다.

물론 당 태종 시기에 ‘진사(進士)’ 명목의 급제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이들이 당시 진사과란 상거 과목의 출현을 증명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진사(進士)’ 명목의 급제자들이 받은 관직은 대체로 훗날의 진사과 합격자에 비하여 너무 높고, 그 품계의 편차 또한 매우 커서, 이것이 말 그대로 단일한 관인 선발 형태였는지 의심스럽다. 당시 ‘진사’는 특정한 과목의 이름이라기보다 ‘사(士)를 올린다’, ‘학식 있다고 추천된 민(民)’이라는 포괄적인 의미였다. 당시 ‘진사’에는 전통적인 찰거나 비정기적인 조칙에 의한 관인의 선발도 포함할 수 있었으므로, 후대의 진사과와는 다른, ‘넓은 의미의 진사’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가 사민(四民)의 하나라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일반 민뿐만 아니라 관인도 참여 가능하였던 찰거와는 달리 ‘진사’는 확실히 일반 민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과거만

이 가진 특성, 즉 일반 민을 관인으로 선발하는 ‘거사(舉士)’라는 점, 이를 통해 선발된 관인 후보자를 정식 관인으로 임명하는 ‘선관(選官)’과 분리되었다는 점이 뚜렷해졌다. ‘과거의 원형’은 늦어도 당 태종 시기에 확실히 생겼다고 할 수 있다.

수 문제부터 새로운 역사적 조건에 따라 관인 선발 제도의 개혁을 모색하였고, 황제 주도성, 관학 중심성, 일반 민만을 겨냥한 ‘진사’의 등장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 시기에 과거가 이미 출현하였다고 말하기는 주저된다는 것이 『과거제도 형성사』의 입장이다. 비록 구품 중정 제도는 폐지되었으나, 한대 이래 지속된 찰거 형태의 관인 선발이 여전히 존재하였고, 정례화된 시험은 아직 공고하게 제도화되지 못하였다. 당시의 관인 선발 제도는 단지 조금씩 새로운 요소를 더해가며 변모하고 있는, 일종의 과도기적인 상태라는 것이다.

과거 제도 형성의 역사 중 수대에서 당 태종 시기까지는 그 초창기로서 중요하다. 후대의 과거와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그 ‘원형’은 만들어졌다. 당 태종 정관 연간(627-649)에 처음 발견되는 ‘진사’란 표현이 바로 그것이다. ‘진’과 ‘사’가 결합된 이 단어 자체에서 찰거와의 차이, 특히 무관(無官)의 평민을 그 대상으로 삼는다는 사실이 명확해졌다. 이것은 수대 이래 관인 선발 제도에서 점진적으로 축적된 변화의 귀결이며, 이후 이와 동일한 명칭의 상거 과목이 생겨나는데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2. 상거의 독자적 발전

수·당 제국의 수립과 더불어 관인 선발 제도에 새로운 요소가 가미되었으나, 아직까지 상거와 제거의 구분은 명확하지 않았고, 특히 지방에서의 자발적인 응시 기록은 발견되지 않았다. 통일 제국의 기초가 다져진 당 태종 때 응거자가 점차 늘어나며, 민을 만한 문헌에 ‘진사’란 표현도 등장

하지만, 후대와 같은 특정한 상거 과목의 명칭이라기보다 어디까지나 ‘넓은 의미의 진사’일 뿐이었다. 이것은 단지 과거의 ‘원형’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고종에서 예종 시기까지의 양상은 그 이전과 확실히 달랐다. 고종 초 영희 2년(651)에는 “처음으로 수재에 의한 선발을 정지(始停秀才)”하는 조치가 내려졌다. 이것은 찰거와 같은 추천 위주의 전통적인 관인 선발 방식을 결정적으로 약화시켰다. 이와 더불어 영희 연간(650-655)에는 “제조거인(制詔舉人)”이 처음 생겼다는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넓은 의미의 진사’ 중에서 황제의 조서에 따른 제거가 따로 독립하였다. 임시적이고 즉흥적인 제거가 독립하면서, 정기적이고 규정화된 관인 선발 방식, 즉 지방과 중앙 관학에서 정기적으로 인재를 뽑아 올리는 과목들 역시 독자적인 제도로 발전할 수 있었다. 이 두 경로는 각각 향공(鄉貢)과 생도(生徒)로 불린다. 이것이 바로 상거로, ‘넓은 의미의 진사’와는 분명히 달랐다. 그리고 고종 말년인 영류 2년(681)에는 진사과와 명경과에 각각 잡문과 첩경 시험이 더해졌다. 상거는 이때부터 책(策)만을 시험하는 제거와 확실하게 차별화되었고, 각 과목의 특징도 뚜렷해졌다. 늦어도 고종 말기에 이르면 상거로서의 진사과와 명경과의 정체성이 명확해지면서 과거가 하나의 제도로 공고한 토대를 마련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무측천에서 예종 치세까지는 계속된 궁중 정변으로 과거의 제도적 정착이 순조롭지 못하였다. 황제가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거를 빈번히 시행하고 관직을 남발하면서 제거와 상거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드는 등 관인 선발 제도를 어지럽혔다. 그러나 무측천 집권기에는 진사과, 명경과의 자발적인 응거, 시험의 강화, 급제자의 승진 기회 증가 등 변화가 뚜렷하였다. 이후 당을 부활시킨 중종과 예종은 당 초기의 정책을 계승하여 관학을 다시 진흥시키고자 하였다. 이 시기에는 관학에서 가르친 경학과 직결된 명경과를 더욱 중시하였고, 관인 선발의 중앙 집권성도 커졌다. 정치적인 격변에도 과거의 제도적인 정착은 꾸준히 진행되었다. 그런데 한편

으로는 이 과정에서 진사과 급제자들이 『진사등과기』의 편찬을 주도하는 등 동류 의식과 집단 행동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이것은 국가 주도적으로 명경과의 제도적 위상을 높이면서 상대적으로 위축된 진사과 지망자, 합격자가 보인 자구책으로 『과거제도 형성사』는 분석하고 있다.

고종에서부터 무척천을 지나 다시 예종 시기까지 일어난 위의 변화 양상을 『과거제도 형성사』는 진사과, 명경과 합격자의 계량적 분석에서도 확인하였다. 고종 영희 연간(650-654)까지의 상황과 그 이후 고종 치세(656-683)를 비교해보면 급제 과목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급제자의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 이것은 관인 선발 방식이 점차 제도적으로 엄밀하게 나뉘고 있음을 시사한다. 나이가 전통적인 명문 성씨 출신자들이 줄어들고, 급제자의 연고지는 넓어져, 과거를 통한 신흥 세력의 부상을 잘 볼 수 있다. 또 진사과 합격자가 처음 얻은 관직은 명경과보다 낮았지만, 승진, 마지막 관직은 오히려 명경과보다 높아졌다. 상거가 관인 선발 제도로서 독립한 이래 일관된 이 현상은 진사과와 명경과의 제도와 현실의 괴리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무척천 집권기, 중종·예종 시기에는 진사과, 명경과 합격자가 처음 얻은 관직의 관품이 점차 고정화되었다. 진사과 급제자는 명문 성씨가 줄어들고 신흥 성씨가 늘어났으나, 명경과는 그 반대였다. 이 두 과목은 응거 방법에서도 차이가 분명해졌다. 진사과와 명경과는 각각 향공과 생도의 관계가 점차 긴밀해졌다. 생도가 명경과에 주로 응시하는 것은 경학을 주로 가르친 중앙 관학의 교육 과정과 무관하지 않겠지만, 합격 후 첫 관직이나 마지막 관직, 유력 가문 출신의 선호도 모두에서 생도 출신 명경과뿐만 아니라 향공 출신 진사과의 위상도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가 일반적으로 과거의 정착 과정을 진사과 위주로만 검토하였지만, 상거의 두 과목, 즉 진사과와 명경과의 관계를 보면, 이들의 관계에 주목해보는 것이 진사과의 성격을 규명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과거제도 형성사』는 제안한다. 관학을 매개로 중앙 집권적인 관인 선발 제도를 구축하려 한 당의 입장에서 관학의 주요 교육 대상인 경학을 시험하는 명경과를 우대한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진사과가 중시한 문학적 소양은 훨씬 복잡한 사회적·역사적 배경을 갖는다. 특히 이 시기 변려문을 쓴 공문서나 궁중의 분위기가 남북조 시대의 유풍을 잇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생도가 아닌 향공을 택한 진사과 응거자들은 황제로부터의 자율성이 강하였던 남북조 사인과 비슷한 속성을 보여주었다. 문학적 기량은 비교적 습득하기 쉬우면서도 당시 군자의 기준처럼 여겨지고 있었다. 신흥 세력이 상대적으로 진사과에 더 큰 관심을 지녔던 것도 이와 같은 특성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3. 과거 제도의 확립

고종 때 제거로부터 독립한 상거는 이후 계속된 정변 속에서도 과거라는 새로운 관인 선발 제도로 발전하였다. 문학 소양을 시험하는 진사과와 경학 지식을 시험하는 명경과는 상거를 대표하는 과목으로, 그 정착 과정에서 서로 다른 속성을 드러냈다. 명경과는 경학을 주로 배운 관학의 학생, 즉 생도가 중심이었던 것에 반해 진사과는 지방에서 올라온 향공이 상대적으로 많아졌다. 그리고 제도와 직결된 처음 임용된 관직은 명경과 급제자가 높았으나, 현실 상황을 반영하는 마지막 관직은 진사과가 높았다.

현종 연간(712-756)의 과거는 같은 시대에 편찬된 『당육전』의 관련 규정을 통해 잘 알 수 있다. 상거 과목의 응시자는 관학이나 지방의 시험을 거쳐야만 하였고, 그 합격자의 첫 관품은 중앙의 성시(省試) 성적으로 결정되었다. 관인 선발 제도의 중심이 된 상거가 시험과 함께 교육 제도, 인사 제도와 긴밀히 연계된 점은 전성기를 맞이한 당 제국의 조직적인 면모를 잘 보여준다. 개원 24년(736) 진사과 응시자와 이부 고공원외랑(考功員

外郎)이 분쟁을 일으키면서 상거의 최종 책임자가 예부시랑(禮部侍郎)으로 바뀐 것 역시 이때의 일이다. 이 변화는 예부가 ‘거사(舉士)’를, 이부가 ‘선관(選官)’을 책임지는 구분을 명확히 하여, 과거가 찰거와는 완전히 다른 제도로 확립될 수 있게 하였다. 예부의 시험 주관이 청 말기까지 과거의 중추였으므로, 후대로 이어진 과거가 현종 때 완비, 확립되었음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 『과거제도 형성사』의 주장이다.

한편 『과거제도 형성사』는 예부가 과거 시험을 주관하게 된 것에 양면성이 있음을 제기하였다. ‘선관’과 분리된 상거를 통한 관직 진출 과정은 더욱 복잡해져 국가 권력의 개입과 통제의 가능성이 커졌지만, ‘거사’의 최종 단계가 된 성시의 권위와 그 시험관, 응시자의 위상 또한 높아졌다. 따라서 명경과를 우대하던 당의 정책과는 별개로 문학적인 역량을 중시하며 진사과를 선호하던 당시 사인들의 주체적인 능동성도 더 높아질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사회적인 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당은 천보 9년(750) 국자감 안에 진사과 전용 학교인 광문관을 설립하였으나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 심지어 3년 뒤 향공을 폐지하면서까지 생도 중심의 철저한 중앙 집권화를 시도하였지만, 이것마저 실패하였다. 황제가 관직을 줄지언정 상거의 급제에 관여할 수 없다는 주장조차 나왔다고 한다. 통일 제국이 의도한 제도와 사인이 주도한 현실 간의 거리는 여전히 좁혀지지 못하였다.

현종 연간의 과거 급제자에 대한 계량적 분석으로 『과거제도 형성사』는 이와 같은 상황을 다시 확인하였다. 『당육전』의 규정과 마찬가지로 명경과 합격자가 진사과에 비해 첫 관직이 높고, 생도의 비율이 향공에 비해 높아졌다. 그러나 진사과 급제자는 명경과에 비하여 첫 관직은 낮았지만, 승급이나 마지막 관직은 높았다. 진사과 응시자는 여전히 생도보다 향공과 밀접하였다. 이 시기 생도 출신의 관품이나 유력 가계 비율은 그 이전보다도 낮아졌다. 이 역시 관학 위주로 상거를 운용하려는 당 조정의 의도와는 어긋났다. 심지어 예부에서 상거를 주관하면서 진사과 급제자의 관품 상승

폭이 명경과보다 커져 그 위상이 더욱 높아졌고, 향공에 대한 사인의 선호도도 높아졌다.

당 조정의 뜻과는 달리 명경과보다는 진사과가, 생도보다 향공이 중심이 되는 상거의 현실은 그 응시 자격만 갖춘 사인의 자부심까지도 고양시켰다. 그러나 이들이 관인이 되려면 오랜 시간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였고, 그 결과 받게 된 처음 관품도 그다지 높지 않았다. 이와 같은 상황은 향공으로 진사과에 응시하였던 지방의 신흥 사인에게 더욱 심각하였다. 그러므로 진사과 응시자들은 합격을 위해 더 적극적일 수밖에 없었고, 그 상대적 독자성 역시 두드러졌다.

진사과 응시자의 합격을 위한 노력을 『과거제도 형성사』는 현종 연간 사인들의 문학 작품을 이용한 교제와 청탁이 만연한 현실에서 찾아내었다. 이 행위의 주체는 대부분 진사과 응시자나 급제자였는데, 이들의 작품 속에는 문학적 역량에 대한 자부심과 이에 반하는 불우한 처지에 대한 한탄이 혼재하였다. 이와 같은 이중적인 심리가 진사과 응시자와 급제자의 활동을 부추겼고, 동류 의식에 입각한 집단화 경향도 강화시켰다. 이 시기에 진사과 급제자끼리의 사적 의례가 확산되며, 좌주·문생 관계의 원형도 나타났다. 이들의 논리는 문학의 이념적 가치를 높임으로써 그 소양을 시험하는 진사과, 나아가 이를 매개로 한 사인들의 결속력까지 정당화할 수 있었다. 이렇게 집단성이 강화된 진사과 응시자와 급제자는 입사나 승진 때 서로 도움을 주고받았다. 이것은 번진이 생겨나면서 벽소의 역할이 커지던 현종 시기의 관리 사회 안에서 진사과의 실질적인 중요성을 키워나가는데 도움을 주었다.

이와 같은 『과거제도 형성사』의 분석은 현종 연간 과거가 새로운 관인 선발 제도로 확립되었음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기존 연구에서도 현종 연간에 과거가 확립되었음을 이미 밝혔지만, 『과거제도 형성사』는 이때 예부가 상거를 주관하게 되면서 찰거와의 차이, 즉 ‘선관’과 구분되는 ‘거사’의 속

성이 명확해진 점, 그리고 이와 같은 제도의 정비가 통일 제국의 뜻대로 운용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예부가 상거를 주관하였지만, 의도와는 다르게 명경과와 생도가 아닌 진사과와 향공의 위상이 높아졌다. 제도와 현실의 괴리는 과거를 둘러싼 사인들의 움직임, 특히 제도적으로는 낮은 지위에 있었으나 자기 능력에 대한 자부심이 컸던 진사과 응시자와 급제자의 주체적인 활동이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과거제도 형성사』는 분석하였다. 교제와 청탁 행위, 강고한 집단적인 동류 의식이 바로 그것이었다.

『과거제도 형성사』는 과거 제도 형성의 역사가 현종 치세에 이르러 일단락되었다고 정리하였다. 안·사의 난 이후 벌어진 정치적인 혼란과 중앙 조정의 영향력 약화에도 불구하고, 상거는 자발적으로 응시한 일반 민 대상의 정기적인 시험으로, 관인 선발 제도의 중심으로 굳건하게 자리매김하였다. 당시 상거 과목과 응거 방법 중 진사과와 향공이 여전히 중요하였는데, 이는 현종 연간의 양상이 계속 이어진 것이었다. 과거 제도의 폐지 때까지 존속한 예부의 과거 관할, 진사과가 이후 과거의 유일한 과목이 된 것도 그 뿌리를 현종 치세에서 찾을 수 있다. 현종 치세의 현실, 즉 진사과 응시자와 급제자의 동태는 과거 제도 형성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라고 『과거제도 형성사』는 정리하고 있다.

III. 과거제도의 기원과 인식의 확장

『과거제도 형성사』는 기존의 일반적인 학설, 즉 과거는 수에서 당 초기에 이미 확립되었다는 것에 의문을 품고, 그것이 당 중기까지 점진적으로 형성되었음을 논증하였다. 그 시작은 기존의 일반적인 학설이 바탕에 두고 있는 선입견과 편견을 확인하고, 이와 같은 혼란을 일으킨 후대의 사료에

는 가능한 한 거리를 두면서 당시의 사료를 바탕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과거의 핵심으로 확고한 지위를 차지하게 된 진사과와 수에서부터 당 초기까지의 ‘진사’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실히 하였다. 또 구품 증정 제도의 폐지에도 불구하고 한대 이래의 찰거가 여전히 시행되고 있었다는 점, 그것이 ‘진사’로도 불렸다는 점을 규명하면서 용어의 혼동에서 오는 착오가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반복되고 있었음을 밝힌 것도 탁견이었다.

나아가 『과거제도 형성사』는 한대 이래 지속된 찰거가 약화되고 제거가 등장한 당 고종 시기를 과거 제도 형성의 중요한 전환기로 규명하였다. 후대의 과거인 상거가 등장한 명확한 증거는 없지만, 황제의 명령에 의한 임시적이고 즉흥적인 관인 선발 제도인 제거의 등장은 곧 정기적이고 규정화된 상거의 등장과 궤를 함께 하는 것이며, 이때 등장하는 향공과 생도, 진사과와 명경과에서 그 증거를 찾았다. 이때부터 진사과는 문학 중심, 명경과는 경학 중심이라는 원칙이 만들어졌다.

상거, 즉 과거에서 진사과가 명경과를 압도하며 과거의 대명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찾은 것 역시 『과거제도 형성사』의 성과였다. 그것은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과거 제도에 대한 이해와 상당히 달랐다. 일반적으로 과거 제도는 황제를 중심으로 한 국가 권력이 자신의 의도에 따라 관인 후보자를 줄 세워 선발하는 제도로, 그 권력의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흔히 설명되었다. 그러나 『과거제도 형성사』는 이와 반대로 국가 권력이 통제하기 쉬운 관학 중심의 명경과가 오히려 관인 지망자에 의해 외면받았고, 실제 관리 조직 내부에서조차 등한시되었던 현실을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밝혀냈다. 중종, 예종, 현종 시기까지 명경과 출신은 비록 국가 권력의 비호 아래 첫 관직에서 우대받았으나, 진사과 출신에 비해 승진도 늦었고, 마지막 관직도 낮았다. 또 진사과 출신은 명경과 출신을 우대하고자 한 국가 권력에 대항하여 자신들의 지위를 지키기 위한 동류 의식과 집단 행

동을 보여주었다. 현종 시기의 거둬진 진사과 억압 조치도 결국 사인과 관인의 저항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현상을 『과거제도 형성사』는 남북조 시대 이래 형성된 사인의 독자적인 정체성과 진사과의 평가 항목인 문학적 재능이 실제 행정에서 유용하였다는 점 때문임을 밝혔다. 송대(宋代) 전시(殿試)의 등장, 명(明)·청(淸) 시대 학교와 과거의 결합 역시 전시가 당락을 좌우하지 않았고 학교는 단지 시험 자격을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였다는 점에서, 그것이 황제를 비롯한 국가 권력의 강화에 과거 제도가 이바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당대 이래 확립된 예부 중심의 과거 운영, 응시자와 급제자의 사회적인 권위 제고는 청 말기 그 제도의 폐지에 이르기까지 관철되었다는 것이 『과거제도 형성사』의 결론이다. 즉 과거 그 자체는 한편으로 황제를 정점으로 한 국가 권력의 인재 독점을 위한 의지와, 사회적·문화적 지배력을 행사하던 사인의 줄다리기 속에서 형성된 것이지, 어느 일방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

『과거제도 형성사』가 이와 같은 연구 성과를 거둔 것은 기존의 일반적인 인식을 만들어낸 영성한 사료 이해를 뛰어넘기 위해 전래 사료를 엄정하게 재분석하면서, 동시에 지금도 발견되고 있는 묘지명(墓誌銘) 등의 출토 사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이 둘을 함께 활용하기 위해 노력한 덕분이다. 또 각각의 사료가 가진 한계를 모두 드러내어, 그 신빙성에 따라 조심스럽게 활용한 점도 눈에 띈다. 이와 같은 사료 분석만 부록으로 100쪽 가까이 전개되고 있다. 하원수 교수의 고된 사료 비판은 다른 연구자에게 분명 본보기가 되는 좋은 선례이다. 아마도 『과거제도 형성사』는 기존의 개설서나 교과서를 수정하게 하는 중요한 연구 성과가 될 것이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황제를 정점으로 한 국가 권력이라는 구심력에 대해 사인이라는 집단의 원심력을 강조하는 듯한 서술 방식이다. 전국 시대의 극단적인 분열과 혼란을 겪은 지식인은 진의 통일과 한의 계승에

열광하였고, 세습적인 특권층을 부정하는 황제 지배 체제 구축에 이바지하였다. 이들 지식인, 또는 지배층은 한편으로 자율성을 주장하기도 하였지만, 이 자율성 역시 결국 황제를 정점으로 한 중앙 집권적 제국 질서라는 울타리가 있었기 때문에 발휘할 수 있는 것으로, 황제에 대한 충성을 거리낌 없이 드러내었고, 그것을 지지하는 유교를 신봉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 둘 사이의 긴장 관계는 황제 지배 체제의 종식에 이르기까지 지속된 것이 사실이지만, 이 둘 사이의 협조가 없었다면 그 긴 시간 동안 그 체제가 유지될 수 있었을지도 의문이다. 과거 제도의 형성과 발전에도 이 둘 사이의 협조는 없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이후 연구를 통해 기대하게 된다.

| 참고문헌 |

- 김덕수, 남종국, 조영현, 신유아, 이은정, 방대광, 양택관, 정동연 著. 2018, *(고등학교) 세계사*, 서울: 천재교육.
- 김태웅, 이근명, 이준갑, 박수철, 강승호, 이종대, 박귀미 著. 2018, *(고등학교) 동아시아사*, 서울: 미래엔.
- 김형중, 장문석, 서각수, 장두호, 김정희, 조예진 著. 2018, *(고등학교) 세계사*, 서울: 금성출판사.
- 신성곤, 윤혜영 著. 2004, *한국인을 위한 중국사*, 파주: 서해문집.
- 신재식 著. 2018, *동양사개론*, 서울: 三英社.
- 안병우, 김형중, 이근우, 신성곤, 함동주, 김정인, 박중현, 정연, 황지숙 著. 2019, *(고등학교) 동아시아사*, 서울: 천재교육.
- 이병인, 이재석, 이정완, 손민호, 김웅기, 서세원, 김병찬 著. 2018, *(고등학교) 동아시아사*, 서울: 비상교육.
- 이병인, 임승휘, 김태훈, 심원섭, 김민정, 황정미, 임태현, 이소영 著. 2018, *(고등학교) 세계사*, 서울: 비상교육.
- 최준채, 윤영호, 안정희, 남궁원, 조미영, 정선아 著. 2018, *(고등학교) 세계사*, 서울: 미래엔.
- 최현삼, 김태훈, 박범희, 신선호, 이용석, 추명엽 著. 2018, *(고등학교) 동아시아사*, 서울: 금성출판사.
- 宮崎市定 著. 1977, *九品官人法の研究—科擧前史—*, 京都: 同朋舎.